상처장루실금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선 희¹⁾ · 유 재 순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국민 대다수의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간호요구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건강문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암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직장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여 장루보유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09), 만성질환의 합병증이나 비뇨기계의 병리적 노화과정으로 인해 요실금 유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건희, 박효정, 김려화, 강윤희, 신경림, 2007). 또한 최근 화재, 폭발,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등이 많아지면서(통계청, 2009) 상처 관련 건강문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처, 장루, 실금 간호대상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상처장루실금 간호영역에서 일반간호사와는 구별되는 전문화된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병원간호사회(2010)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Wound Ostomy Continence Nurse)의 수가 2009년 43명에서 2010년 51명으로 증가하였다.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간호업무도 상처장루실금 간호라는 전문분야로 세분화 되었으나, 상처장루실금 간호영역이 법적으로 전문간호분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의 표준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서종례, 2011). 상처장루실금 간호사가 이 영역의 전문간호를 전담하고 있기 보다는 일반간호사나 관리자가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어(권인각 등, 2003), 상처장루실금 간호 서비스의 질관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간호의 질 향상은 간호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간으로 최근에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요한 원동력이다. 간호의 질 향상과 관련 있는 중요한 개념이 간호업무성과이다.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의 업무수행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자가 적절한 간호를 제공받았는가를 확인하여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것(송지영, 2009)이다. 최근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그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업무성과수준은 간호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각 의료기관의 간호부서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업무성과가 전체 간호부서의 간호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임상에서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처장루실금 영역에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업무는 일반간호사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일 또는 수시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환자의 건강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고 처방을 받아서 환자의 건강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다(김세영, 2010). 반면에 상처장루실

주요어 : 상처장루실금 간호사, 간호업무성과,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 이 논문은 제1저자 이선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1)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간호사

2)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yjs9244@chungbuk.ac.kr)

투고일: 2012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30일

금 간호사는 상처장루실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처방권을 진료팀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이 요구된다.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요인(지성애, 유형숙, 2000; 양정숙, 2004), 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남줄, 1998). 간호업무가 전문화될수록 간호사 자율 재량에 의해 임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간호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성미혜, 엄옥봉, 2010). 상처장루실금 간호사는 고유의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간호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와 요구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간호업무를 수행해야하므로 일반간호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을 요구한다.

간호사의 업무성과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클수록 향상된다(구옥희, 2000). 임파워된 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합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합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키워나가므로 적극적이며 도전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업무성과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또 다른 요소로 직무만족을 들 수 있다. 간호의 궁극적 목적이 간호대상자를 최적의 건강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간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간호사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즉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태도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이영미, 2009),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준은 간호업무성과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간호업무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간호업무성과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병원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수준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와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의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수준을 파악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수준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상처장루실금 간호사회(Korean Association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s, KAWOCN)의 홈페이지(<http://kawocn.or.kr>)에 등록된 21개 병원에 재직 중인 상처장루실금 간호사 중에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이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연구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지킨다는 것과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문지 및 서면동의서에 명시하였다.

2011년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87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하고 총 80부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final model=linear multiple regression,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는 77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80명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이며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연구변수를 측정하였다.

● 직무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총 임상경력, 상처장루실금 분야의 업무경력,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 이수여부, 소속 부서, 처방권 위임정도, 업무유형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 변수

• 간호업무성과

고유경, 이태화, 임지영(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업무수준향상, 간호과정적용 등 4개 하위영역의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다.

• 전문직 자율성

Schutzenhofer(1983)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율성 척도를 한정자, 이은옥, 박성애, 하양숙, 김금순(199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전문직 자율성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0개 문항의 Likert형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율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는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자율성의 중요도에 따라 1-3점의 가중치를 주었다. 30개 문항 중 높은 정도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10개 문항은 3의 가중치를, 중간 정도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10개 문항은 2의 가중치를, 낮은 정도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10개 문항은 1의 가중치를 주어 가중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점의 범위는 최저점수 60점에서 최고점수 240점까지이며, 60-120점까지는 낮은 정도의 자율성, 121-180점까지는 중간 정도의 자율성, 181-240점까지는 높은 정도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박미순, 2006)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도구는 Chandler(1987)가 개발한 CWEQ(Condition of Work Effectiveness Questionnaires)를 양길모(1999)가 국문으로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도구는 기회요인, 정보요인, 지지요인, 자원이인 등 4개 하위영역의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허영주, 2009)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 직무만족

Slavitt 등(1978)이 개발한 직무만족 도구를 번역(송명숙, 강경자, 이명화, 1998)한 것을 서종례(201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율성 6개 문항, 업무요구 5개 문항, 조직요구 3개 문항, 전문직 8개 문항, 보수 4개 문항, 상호작용 5개 문항 등 6개 하위영역의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9개의 부정 문항은 통계분석 시 역환산 하였다. 선행연구(서종례, 2011)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및 직무만족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수준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총 임상경력 평균 11.53(± 5.93)년이었으며, 상처장루실금 분야에서의 임상경력 평균 4.47(± 3.05)년이었으며,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60.0% (48명)였다. 연구 대상자중 병원 방치에 의해 진료팀으로 부터 상처장루실금 관리에 대한 처방권을 전부 위임받은 경우는 17.5%(14명)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22.5%(18명)만이 상처장루실금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간호업무성과 및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수준

<Table 1> Job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0)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Work experience as clinical nurse(years)	<5	11(13.8)	11.53±5.93
	5-9	25(31.3)	
	10-14	21(26.3)	
	15<	23(28.8)	
Work experience as WOCN*(years)	<5	49(61.3)	4.47±3.05
	5-9	26(32.5)	
	10<	5(6.25)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Speciality of WOCN*	48(60.0)	
	None	32(40.0)	
Department	Nursing department	73(91.3)	
	Medical department	4(5.0)	
	Others	3(3.8)	
Assignment of prescription rights	All	14(17.5)	
	Partially	54(67.5)	
	Not at all	12(15.5)	
Work type	Independent work in wound ostomy continence nursing	18(22.5)	
	Primary surgical nursing	35(43.8)	
	Work in ward	17(21.3)	
	Others	10(12.5)	

* WOCN=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즉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수준은 평균 3.67(±0.79)점이며, 대상자의 77.5%에서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 수준은 평균 3.25(±0.48)점이었으며 직무만족 수준은 평균 2.68(±0.27)점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N=80)

Variables	Category	n(%)	Mean±SD
Task performance			3.67±0.79
Professional autonomy	Low	5(6.3)	160.96±23.56
	Middle	62(77.5)	
	High	13(16.3)	
Empowerment			3.25±0.48
Job satisfaction			2.68±0.27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수준

직무관련 특성별 간호업무성과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상처장루실금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수준(3.91±0.42)이 5년이상 9년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3.43±0.6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4.53, p=.014),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수준(3.86±0.51)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3.40±0.6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t=3.66, p<.001). 또한 연구 대상

자의 업무유형에 따라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상처장루실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성과수준(4.05±0.60)이 다른 업무를 함께 겸임하고 있는 간호사(3.51±0.6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56, p=.005)(Table 3).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등의 3개 연구 변수와, 직무관련 특성 중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처장루실금 업무경력,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 이수여부, 업무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불연속 변수(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 이수여부, 업무유형)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성 관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중 공선성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공차 한계값이 .822~.907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은 1.216~1.102로 10미만으로 나와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 의하면 6개의 독립변수 중 3개의 변수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율성이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으며(F=37.37, p<.001),

<Table 3> Task performance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N=80)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or F	p	
Work experience as clinical nurse (years)	<5	3.65±0.60	0.29	.831	
	5-9	3.59±0.44			
	10-14	3.70±0.61			
	15<	3.74±0.71			
Work experience as WOCN* (years)	<5 ^a	3.91±0.42	4.53	.014	a>b
	5-9 ^b	3.43±0.62			
	10< ^c	3.74±0.60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Speciality of WOCN*	3.86±0.51	3.66	<.001	
	None	3.40±0.61			
Department	Nursing department	3.68±0.60	0.10	.910	
	Medical department	3.69±0.67			
	Others	3.52±0.25			
Assignment of prescription rights	All	3.95±0.36	2.89	.062	
	Partially	3.57±0.57			
	Not at all	3.82±0.78			
Work type	Independent work in wound ostomy continence nursing ^a	4.05±0.60	4.56	.005	a>b
	Primary surgical nursing ^b	3.51±0.61			
	Work in ward ^c	3.76±0.45			
	Others ^d	3.45±0.45			

* WOCN=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a,b,c,d=Scheffe

다음으로 임파워먼트($F=33.10$, $p=.001$),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 이수여부($F=7.46$, $p=.008$) 순으로, 이들 3개 변수가 간호업무성과를 4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ask performance (N=80)

	Adjusted R ²	β	F	p
Professional autonomy	.315	.422	37.37	<.001
Empowerment	.407	.274	33.10	.001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453	-.239	7.46	.008

논 의

이 연구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수준을 파악하여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그리고 직무관련 특성인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 이수여부였으며, 이 중에서 전문직 자율성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간호업무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결과(양정숙, 2004)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즉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간호사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업무성과가 증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의 질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전문직 자율성의 영향력을 규명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가 적절한지 또는 효과적이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 한 후에 질적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고, 측정을 위한 표준 지표를 선택하여 간호업무를 평가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순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한성숙 등, 2006).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업무의 독자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백미경 2004)이며 간호 전문직의 필수 요소(박미순, 2006)로서 간호의 질 관리 과정 중 표준 설정단계의 이전단계인 가치관 형성 단계(한성숙 등, 2006)에 포함되는 내용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의 질 관리의 과정 중 전문직 가치관 형성 단계의 중요성, 특히 전문직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문직 자율성 다음으로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임파워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오은희, 정복례, 2011)와 일치한다. 또한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박지연, 2003; 유순옥 등, 2006)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로써 임파워된

간호사는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어 업무수행 시 동기부여가 잘 되어있어 업무에 몰입하게 되어(한성숙 등, 2006) 그렇지 않은 간호사 보다 간호업무성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간호업무성과를 예측하는 여러 설명변수 중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 이수여부가 다른 변수에 비해 설명력은 낮지만,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한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경우 업무수행 역량이 강화되어 업무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는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이 영역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을 갖추어야 비로소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의 실무역량강화는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하나선, 최정, 2010) 상처장루실금 간호사가 이 영역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특히 병원 및 간호행정부서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변수 중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준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간호사의 직무만족이 간호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조경희, 2003)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준은 신경외과 전문간호사(이혜진, 강영실, 최은숙, 2006) 보다는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준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간호사 보다 높으며(서종례, 2011), 전문간호사의 업무겸임이 직무불만족의 요인(백미경, 2004)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준이 신경외과 전문간호사보다 낮게 나온 이유와 직무만족이 업무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77.5%가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업무를 함께 겸임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여건에서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우선시 되어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전문간호사로서 직업적 긍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서종례, 2011),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준이 신경외과 전문간호사(이혜진 등, 200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간호업무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연구변수의 수준을 보면,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수준은 중간 이상이었으나,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수준(류숙영, 2008; 양정숙, 2004)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상처장루실금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서 간호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처장루실금 간호사나 전문간호사의 업무성과수준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상처장루실금 간호만을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성과 수준을 일반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류숙영, 2008; 양정숙, 2004)와 비교해 보면, 상처장루실금 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성과 수준은 일반간호사 보다 높았으며, 상처장루실금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간호사 보다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의 직무만족 수준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연구대상자의 업무 유형 즉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상처장루실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간호업무성과 수준이 일반간호사의 업무성과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의 표준이 미비하고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서종례, 2011)는 점도 연구 대상자인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업무성과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병원상처장루실금 간호사회가 주축이 되어 병원의 간호행정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처장루실금 간호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의 표준을 개발하여 이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수준은 중간정도에 해당된다. 이는 장루간호사(백미경, 2004)나 전문간호사(박미순, 2006)보다는 낮고 일반간호사(양정숙, 2004)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루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일반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성미혜, 엄옥봉, 2010)와는 차이가 있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조직에서 다른 직원의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는 것이다(박미순, 2006). 즉 상처장루실금 간호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일반간호사보다 독립적으로 간호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데,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수준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진료팀으로부터 업무 처방권을 전부 위임 받은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높으며, 상처장루실금 업무의 전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이선희, 2011),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서 업무처방권을 진료팀으로부터 전부 위임받은 간호사는 17.5%이며, 상처장루실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간호사도 22.5%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처방권의 일부만을 위임받거나 또는 전혀 위임 받지 못한 여건에서 상

처장루실금 영역에서의 전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는 직무 관련 특성으로 인해 이들의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선행연구결과(성미혜, 엄옥봉, 2010)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전담체계를 확립해야하고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권한과 책임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간호사가 전문직 자율성을 확보하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간호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의사결정하는 능력과 전문지식 및 업무 경험을 쌓는 등의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간호사로서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간호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지성애, 유형숙, 2004). 이를 위해서는 병원상처장루실금 간호사회가 주관하여 상처장루실금 간호영역을 전문간호사의 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오 주, 2007), 인공신장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준(허영주, 2009)과는 비슷한 결과이다. 반면에 일반간호사(박지연, 2003)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로 미루어, 간호업무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의 경우 환자간호시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파워를 부여받아야(양길모, 1999) 임파워됨으로써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전문직 자율성, 임파워먼트, 상처장루실금 교육이수 여부 등 3개 변수의 설명력이 45.3%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수의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업무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정도가 다르고, 업무유형(상처장루실금 전담업무, 외과 전담간호사로서 간호업무, 병동간호사로서 간호업무)이 각기 다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향후 상처장루실금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이 영역에서의 전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유용성은 상처장루실금 분야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율성 수준을 우선 높여야 하며, 아울러 임파워먼트 수준을 강화하고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을 이수함이 필요함을 규명한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조직이 상처장루실금 간호 분야의 업무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기획하고 중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우리나라 상처장루실금 간호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21개 기관에 근무하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 80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9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자의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F=37.37, p<.001$), 다음으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파워먼트($F=33.10, p=.001$),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 이수여부($F=7.46, p=.008$) 순으로, 이들 3개 변수가 간호업무성과를 4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전문직 자율성과 임파워먼트를 증진시켜야 하며, 상처장루실금 전문교육과정의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상처장루실금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도 본 연구의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구하였으므로 향후 상처장루실금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이 영역에서 전문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영향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현행 의료법에 제시된 전문간호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간호사의 업무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전체 간호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고유경, 이태화, 임지영 (2007). 임상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 개발. *간호행정학회지*, 37(3), 286-294.
- 구옥희 (2000). *임상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조직의 임파워먼트 구조모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전.
- 권인각, 김연희, 황경자, 김혜숙, 이봉숙, 이혜숙, 최원자

- (2003). 임상전문간호사 운영 현황 및 역할 조사. *임상간호연구*, 9(1), 55-75.
- 김건희, 박효정, 김려화, 강윤희, 신경림 (2007). 일 도시지역 노인여성의 요실금, 우울 및 삶 의 질의 관계. *한국노년학회*, 27(4), 943-962.
- 김남줄 (1998). 복합조직에 고용된 전문직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 윤리학회보*, 11, 23-40.
- 김세영 (2010). *가정전문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류숙영 (2008).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미순 (2006). *전문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울산.
- 박지연 (2003).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 스트레스 및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백미경 (2004). *장루 간호사의 자율성 정도와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병원간호사회 (2010).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Retrived July 20, 2012, from HOSPITAL NURSES ASSOCIATION web site: <http://khna.or.kr/web/information/resource.php>.
- 서종례 (2011).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성미혜, 엄옥봉 (2010). 임상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7(2), 274-281.
- 송명숙, 강경자, 이명화 (1998). 신장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 경험 정도와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0(1), 32-47.
- 송지영 (2009). *간호사의 자율성이 임파워먼트 및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양길모 (1999).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업무관련 개인적 특성, 업무성과 관계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양정숙 (2004).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오은희, 정복례 (2011). 병원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간호업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7(4), 391-401.
- 오 주 (2007).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서울.
- 유순옥, 이소연, 한수옥, 장난순, 김연옥, 허진영, 염영희 (2006). 일 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업무성과 및 직무만족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2(3), 406-414.
- 이영미 (2009). *응급실 중증도 분류 간호사의 업무현황, 업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혜진, 강영실, 최은숙 (2006). 신경외과 임상전문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8(2), 304-313.
- 조경희 (2003). *셀프리터십이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지성애, 유형숙 (2000). 간호전문직 자율성의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1(5), 781-792.
- 통계청 (2009). 암발생자수 및 암발생률. Retrived May 11, 2012, from Statistics Korea web site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70.
- 하나선, 최 정 (2010). 간호사의 간호역량이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6(3), 286-294.
- 한경자, 이은옥, 박성애, 하양숙, 김금순 (1994). *간호학연구도구집*, 서울: 현문사.
- 한성숙, 권성복, 김문실, 김용순, 문희자, 안성희, 이선미 외 공저 (2006). *간호관리학 II*. 서울: 수문사.
- 허영주 (2009). *인공신장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Faul, F., Erdfelder, E., Lang, A.-G. & Buchner (2007). G*Power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Influencing Factors on Task Performance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s in Korea^{*}

Lee, Sun Hee¹⁾ · Yoo, Jae Soon²⁾

1) Nurse,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variables influencing task performance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s (WOC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80 WOCN in Korea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1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Variables consisted of task performance, empowerment, professional autonomy, job satisfaction and job-related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Professional autonomy was a major predictor of task performance of WOCN ($F=37.37$, $p<.001$). Empowerment($F=33.10$, $p=.001$) and completion of the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for wound ostomy continence nursing WOCN($F=7.46$, $p=.008$) were the other significant predictors of task performance.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45.3% of task performance. **Conclusion:** Professional autonomy, empowerment and completion of the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contribute to task performance of WOCN.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s hoping to achieve the maximum potential of WOCN's professional role. Therefore, strategies for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 autonomy, empowerment, and comple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are necessary for WOCN working in South Korea.

Key words :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Task performance, Professional autonomy,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from Chungju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Jae Soon

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Heungdu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49-1712 Fax: 82-43-249-1711 E-mail: yjs9244@chungbuk.ac.kr